

“도전과 혁신으로 ‘간호시대’를 열겠습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 후보 선거공약 발표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만숙)는 제38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경림 후보(현 대한간호협회장)가 제출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 후보, 이사 및 감사 후보의 자기소개서와 출마의 소견을 발표했다.

신경림 회장 후보 공약

기호 1번 신경림 회장 후보는 선거공약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간호시대(The era of Nursing)’를 열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5대 핵심공약과 15개 실천공약을 제시했다. 5대 핵심공약별 세부 실천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 관련 법·제도 혁신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조산)법 제정 △체계적인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의 정규부서 전환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간호모형 개발 및 제도 개선

2.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비전 및 조직 혁신

△대한간호협회 회관 신축 및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협회 100년사 편찬 △대한간호협회 100년 설계를 위한 새로운 장기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대국민을 중심으로 조직, 의사결정체계 및 홍보 혁신

3.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현장 혁신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2018. 3. 20.)’의 확대 개편 추진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및 간호수가 체계 개편 △노동시간 및 법정간호인력기준, 간호조직문화 개선으로 간호현장 혁신

4.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교육 혁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대비 및 임상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혁신 △다

회장단 후보 프로필 및 선거공약 2면

이사 및 감사 후보 프로필 3면

양한 간호현장의 특성과 회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교육체계 혁신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체계 혁신

5.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국제사업 혁신
△WHO 지정 ‘2020 세계간호사의 해’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 △ICN, WHO, UN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Nursing Now(보편적 건강보장 캠페인) 참여 및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추천 지원

임원 후보 명단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에 신경림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 곽윤희 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을 지명했다.

선출직 이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욱(삼육대 간호대학 교수)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현 대한간호협회 상근이사) △염혜아(가톨릭대 간호대학 부교수)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국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학장).

감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학부장).

임원선거 2월 19일

임원선거를 통해 앞으로 2년(2020~2021년) 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과 선출직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임원선거는 오는 2월 19일(수)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87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직의원(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당연직 부회장’으로는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확정됐다. 간호협회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호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출직 이사’는 득표수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창을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개설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은 선거관리위원장 인사말, 선거일정, 임원선거관리규정, 선거운동지침, 임원 후보 명단, 후보 프로필 및 공약사항, 공지사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사 국가시험 2만2437명 응시

합격자 발표 2월 14일 ... 휴대폰 문자 통보

2020년도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만2437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됐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최종 2만2437명이 접수했으며, 이중 2만2437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 99.3%를 보였다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밝혔다.

국가시험은 전국 16개 지역, 4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시험장은 지난해 12개 지역에서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이 새로 추가돼 모두 1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시험이 치러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서울 성동공업고에 마련된

시험본부를 방문해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환담하고 함께 시험장을 둘러봤다.

신경림 회장은 “수험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우리나라 간호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짧은 후배들이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동공업고 시험장에 응원부스를 설치하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조정숙 이사(홍보위원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등 임직원들이 따뜻한 음료와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한편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은 △1교시- 성인간호학, 모성간

호학 △2교시-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3교시-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다.

시험문항은 모두 29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총 270분이다. 배점은 1문항 당 1점이며, 총점은 295점이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2월 14일(금)이다.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ARS(060-700-2353)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응시자에게는 문자 메시지(SMS)로 합격여부가 통보된다.

이진숙 기자 jslee@

환자 10명 중 9명 ‘간호사 서비스’ 만족

복지부, 외래 및 입원 환자의 경험 조사결과 발표

의료기관의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이 외래진료에서는 89.2%, 입원진료에서는 88.7%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전국 6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만2507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항목은 총 7개 영역, 118개 문항이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8일~9월 20일이다.

△외래진료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외래진료 중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9.2%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결과 83.9%에 비해 높아졌다.

항목별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 대함’ 89.7%(2018년 84.5%),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8.7%(2018년 83.3%)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두 향상된 결과다.

△입원진료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입원진료 중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8.7%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결과 78.9%에 비해 높아졌다.

항목별로 보면 ‘예의를 갖추어 대함’ 91.6%(2018년 79.1%),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0.1%(2018년 77.0%),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83.4%(2018년 76.9%),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 89.6%(2018년 82.6%)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두 향상된 결과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면에 계속)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업)